



다섯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의 그림자, 이주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는 이주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여겨진다. 안디옥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그들은 서로 장려하기를 힘썼다. 그들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고, 그중에는 선지자와 교사들도 있었다. 둘째로, 안디옥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유지했다. 교회의 다섯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가 되었다. 셋째로, 안디옥교회는 영성을 추구했다. 예배와 금식은 교회에서 행한 중요한 활동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에 충실하면서 영적 규율을 준수했다.

넷째, 안디옥교회는 분별력을 지녔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감지했다. 다섯째, 그들은 순종을 우선시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계시에 주의하여 복음 전파에 집중하였고 그들의 리더십을 기꺼이 파송할 수 있었다. 파송 보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저명하고 재능 있는 지도자였다. 이러한 특징을 통틀

어 보았을 때 안디옥교회는 '이주민들에 의한,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지역 교회에도 유사한 자질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특정한 장소, 시간, 교파를 넘어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성장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미전도된 사람(Unreached), 접촉되지 않은 사람(Untouched), 개발되지 않은 사람(Untapped), 관여되지 않은 사람(Unengaged), 교회 되지 않은 사람(Unchurched)들이다.

교회가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미전도된 자'는 복음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기독교 지역에서 자랐지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접촉되지 않은 자'는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난민교회의 조나단 브룩스(Jonathan Brooks) 목사는 "교회에서 잊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들은 생

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성별 등의 지위 탓에 대부분 무시당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의도, 인간 존엄성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존중이 필요하다.

'미개발된 자'들은 교회 펠로십에 참여할 수 있지만 관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쉽게 여긴다. '관여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열려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예배나 교회 행사에 초대하지 않는다. 직장 또는 학교 등에서 성도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들을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의 핵심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이 다섯 가지 부류에 공통으로 중복될 수 있는 그룹이 이주 중인 사람들(People on the Move), 즉 디아스포라 이주민이다. 이들은 교회 인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교인들은 이들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교회나 개별 기독교인과의 사전 접촉이 없다. 교회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중요한 것은 이주민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나 수단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부를 때, 우리는 결코 강압적이거나 상대방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 우리의 섬김이 이주민에게 향하길 기도하며, 본지는 최근 디아스포라 사역 이슈를 4월호에 담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PCK) 국내 이주민 선교

KIMA 공동대표
(사)국경없는마을 이사
소금의집 대외협력국장
(사)글로벌디아코니아 -
다문화 전문위원 및 사무국장



류성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이하 PCK)은 60~70년대 민족복음화 운동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산업화에 대응하여 도시산업 선교에 주목하였다(이미 합동과 분립 전인 1957년 제42회 총회 전도부 내에 산업선교회를 설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1980년대 '예장민중교회목회자협의회' 산하에서 도시산업 선교를 하던 교회들은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PCK에서 가장 먼저 이주민 선교를 시작한 곳은 1992년 영등포 노회

의 갈릴리교회(인명진 목사)이다. 이후 초기에는 공장 밀집지역에서 복음 전도와 외국어(중국어·영어) 예배, 무료 진료소, 이·미용 봉사 등을 시작하였고, 점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안산·서울·대구·대전·청주·전주 등)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나섬교회(유해근 목사), 대전 빈들교회(김규복 목사),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김경태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박천웅 목사), 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 등의 교회가 이주민 대상 노동상담과 인권상담을 주로 시작하였다. 복음과 선교 중심의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은 온누리교회(하용조 목사)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예배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150여 교회와 단체가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노회의 공식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제80회 총회(1995)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후원 및 협력하기 위

한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의 조직·구성이 허락되었다. 총회 소속 이주민선교단체들인 '예장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다가 이후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로 변경되었고, 제95회 총회(2011)에서 총회 산하기관으로 인준되어 호남과 영남에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제82회 총회(1997)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선교사 제도' 도입과 이주민 출신 '자국 목회자 총회 선교동역자 청빙' 건이 청원되어 1년간 보완·연구키로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85회 총회(2000)에서는 9월 셋째 주일을 '총회 외국인근로자 선교주일'로 제정·허락하여 현재까지 성수되고 있다. 이후 이주민 선교 업무는 기구개혁에 따라 제88회 총회(2003)에서 국내선교부로 통합되었고, 제105회 총회(2021)에서 '해외·다문화선교처'로 이관되었다. 총회 공식기구 명칭에 '다문화선교'가 들어

간 유일한 교단이 되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PCK는 에큐메니컬 선교의 기초와 정책인 '협력과 연대'로써의 선교 방향을 받아들여 해외 35교단 및 선교기관들과 사전 연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송출국과 협력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UCCP)는 선교동역자를 추천하고, 미국개혁교회(RCA)는 선교특별헌금으로 선교사의 사례비를 지원하고, PCK는 사역지와 체류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협력·선교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장로교회(PCUSA), 개신교선교연대(EMS), 아시아교회협의회(CCA), 세계선교협의회(CWM) 등과 협력하여 다자간 선교사역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5월호는 감리교단이 실린다.

2023년 제1차 로잔 온라인 선교적 대화 진행

한국로잔위원회가 4월 1일 오전 8시 30분 고든대 선교학 교수인 안성호 박사(OMF 선교사)를 초청해 2023년 제1차 로잔 온라인 선교적 대화를 진행하였다.

안성호 박사는 이날 '디아스포라 신학: 흩어진 자들, 파종하는 자들'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21세기 전 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인 '글로벌화'와 난민, 이주민, 유학생 등 '디아스포라' 현상에 따른 다민족·다문화·다언어·다종교화된 전 세계 도시 상황을 소개하고, 하

나님 나라 백성 또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시대를 맞아 디아스포라와 난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도전하였다. 선교적 대화는 온라인 줌에서 경건회와 발제, 이후 소그룹 토의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로잔위원회는 2024년 제4차 로잔대회 한국 개최를 앞두고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복음을 구현하여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교적 대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국로잔위원회는 선교적 대화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가 효율적 성장에서 겸손, 정직, 단순함이라는 성숙한 결실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NCOWE 2023 4면

약자로부터 시작되는 이주민선교 현장 5면

바다 위에서 이뤄지는 디아스포라 선교 6면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10-11면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과 이슈 12-13면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A CONSULTATION ON DI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는 공촌교회 공촌외국인사랑방



공촌교회 담임
공촌외국인사랑방 대표

글

최고수 목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낯선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산업근대화를 외치며 정신없이 달려오던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산업 현장에는 외국인이 몰려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복지와 인권 등 다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던 우리에게도 그들 못지않게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다. 몽골어로 한국은 '솔롱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무지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꿈을 이루어 주는 무지개의 나라였다. 하지만 물밀듯 몰려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한국은 결코 희망을 주여주지 못했다. 근로현장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인종차별이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고,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의 전부인 양 여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월 2일 인천 서부공단외국인들 및 주변에 흩어진 외국인을 초청하여 '외국인근로자 초청잔치'를 열었고, 이로써 공촌교회 '공촌 외국인 사랑방'의 이주민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초창기 사역은 주로 외국인을 위로하는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초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하고 계셨다.

1997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몽골 철도대학 교수 출신의 네루구이 씨가 이듬해 공장 숙소에서 뇌졸중으

로 그만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몽골에서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들은 딸 할륀나씨는 한국에 급히 찾아왔고, 공촌외국인사랑방의 사역과 네루구이 씨를 향한 손길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큰 도전을 받았다. 할륀나씨는 당시 통역을 해주었던 선교사님을 통해 몽골에 돌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몽골에서 목사가 되어 현재는 선교하는 교회의 사역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공촌교회 공촌외국인사랑방 사역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고 수많은 외국인이 몰려오게 되었다.

공촌교회 이주민 사역이 햇수로 십년을 넘어서는 때쯤 10대 후반 혹은 20대 중반에 왔던 이주민들이 30대가 되어가자 다들 고향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중심역할을 하던 몽골 지체들이 차츰 떠나자 교회는 텅 비는 듯했고 이주민 사역도 끝나는 듯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주셨다. 2013년쯤, 몽골을 방문하던 중에 모르는 몽골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길 2천 년대 초 한국에 근로자로 있을 때 공촌교회에 친구들과 참석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기회가 되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

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목사님을 만나면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때 우리는 몹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015년 어느 날에는 노동자로 왔다가 한국 청년을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톨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몽골에 가시면 저희 부모님을 꼭 찾아가서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하늘나라에 가실지 몰라요." 톨 집사의 부탁을 받고, 나는 그해 몽골에 갔을 때 그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찾아갔을 때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셨다. 딸이 선물로 보내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신 것이다. 내가 재차 복음을 전하자 그분들은 주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세례도 받으셨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몽골에 와서 네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몽골 방문을 '거룩한 행군'이라고 이름 붙였다. 2018년에 이뤄진 '1차 거룩한 행군'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년 이렇게 몽골을 방문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행군을 통하여 몽골에서 많은 열매를 보며 힘을 얻었다. 그중 첫째로, 톨 집사의 가

족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둘째로, 밋드자 집사 부모님 가정이다. 우리가 몽골에 가자 덤프트럭을 운전한다는 밋드자 집사의 외삼촌이 소식을 듣고 1,000km 떨어진 광산에서 찾아왔으며, 84세 되신 불교 신자였던 외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셋째로, 한국에 근로자로 온 30대 초반의 몽공후 형제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이다.

공촌교회 공촌외국인사랑방 사역은 어느덧 26년째 이어져 왔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련을 또 한 번 겪었다. 코로나로 몽골 예배가 중단된 이래로 몽골 지체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작년 5월부터 몽골 어린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올 초부터 몽골 성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단지 한글공부를 위해 교회를 찾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생명의 씨앗으로 본다. 때가 되면 그들도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떠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훗날 몽골에서 거두어지는 또 다른 열매를 볼 것이다.

올여름에는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몽골인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과 몽골의 가족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때 그들의 고향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과 함께 특별한 복음전도 잔치를 할 것이다. 그 일에도 지금까지 열매 맺은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리라 확신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6)

▼ 톨 집사의 부모님이 세례받는 모습



NCOWE 2023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 (3)

미션파트너스
NCOWE 2023 프로그램위원장



글

한철호 목사

제8차 NCOWE(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 전략회의,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는 세계기독교 시대에 한국선교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트랙별 모임을 진행한다. 모임에서는 각 영역의 반추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들이 함께 실천 과제와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아래의 영역들 대부분은 이미 지난 NCOWE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내용이지만,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라는 관점에서 다시 천천히 살펴보아야 한다.

1. 유동 선교(People on the move) 트랙: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유동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디아스포라'는 지구촌(Glocal) 시대의 핵심 현상이며 하나님의 섭리다. 인구 유동(People on the move) 현상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넘어서 난민, 유학생, 비즈니스, 국제결혼,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을 포함하여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선교 형태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2. 다음세대 선교 동원 트랙: 선교 역사에서 '청년 대학생'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청년대학생 사역의 현실에서 다시 그들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시대가 일어나야 한다. 청년 인구 감소, 대학 문화의 세속화 등 극

복해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기독교청년과 다음세대 선교 동원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은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3. 선교 생태계와 선교단체 트랙: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의 서구 선교 패러다임의 끝물에서 배우고 전달되어 시작된 현재의 한국 선교단체 구조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즉 새로운 세계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적합한 선교 생태계로 전환되고 이에 걸맞은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다가오는 시대에 선교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선교단체의 구조, 모델, 운영방식, 선교사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4. 교회와 선교 트랙: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를 지원하는 구조 정도가 아니라 선교하는 공동체로 전환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는 선교사 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선교인(missioner)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동원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5. 텐트메이커 트랙: 변화된 선교현장과 세상은 직업과 선교를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과 영성을 통합하는 일터 영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일터 안에서 선교하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오늘날 변환된 선교 환경은 더 많은 텐트메이커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6. 전방개척 선교 트랙: 미전도, 미복음화, 최소 복음화 지역의 돌파와 자생적 교회 배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인종(종족), 종교, 사회계층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문화 집단 안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 문화로 단절된 계층(세대)과 영역(환경), 사상 안에도 복음이 벽을 넘어 전달되어야 한다.

7. 정보화 시대와 선교 트랙: 한국선교는 사이버 세계와 신기술의 도전과제 및 기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글로벌 선교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 최적화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IT, 문서 사역, 4차 산업시대의 선교 정보 이동과 활용, 리서치, 아카이브, 도서관, 미디어 등을 어떻게 선교와 연결시킬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8. 현지 교회와의 협력 트랙: 외부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서구 형태의 일방적인 선교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선교(사)가 내부자 중심의 선교 시대로 들어오면서 맞닥뜨리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돈과 선교, 파트너십, 리더십과 섬김,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내부인 주도의 배가되는 교회개척, 선교사의 언행일치(거룩), 고난받는 지역에서 선교, 동반자 관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9. 여성 선교사, 가정 트랙: 세계 선교사의 반 이상은 여성 선교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방식, 리더십 등의 영역에서 남성 중심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유교 문화권에서 발전된 한국선교 안에서 여성 선교사의 역할과 위치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 여성 리더십, 선교방식의 전환, 가정과 사역에서 역할분담, 건강한 가정, 자녀 양육, 선교사 관리 등에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 NCOWE 2023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 기대한다. 첫째, 교회·선교단체·선교사 등 각 영역에서 실제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선교를 되돌아보고 내다보는 대화에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모인다.

둘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엘 2:28-32)라는 비전이 베드로를 통해 재확인되고 초대 교회와 선교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세대·남녀·직위를 넘어서 성령의 부어주시심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서로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며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NCOWE가 되길 기대한다. 이로써 한국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테이블 대화가 강조된다.

셋째, NCOWE 기간(6월 13~16일)도 중요하지만, 1월부터 모이는 트랙별 모임과 각종 사전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해간다면 NCOWE 2023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NCOWE에서 제시되고 모인 방향과 대안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후속 모임을 통해 이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원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약자로부터 시작되는 이주민선교 현장, 태국 카렌족 지역교회

GMS 파송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아신대학교 (ACTS) 연구교수
태국카렌침례총회 -
실로암신학교 교수



오영철 선교사

선교사로서 요즘만큼 흥분과 기대가 겹치는 시간이 또 없는 것 같다. 꿈꿔온 것이 실현될 것 같은 징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현지 교회의 선교운동이다.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4곳의 카렌 총회에 속한 지역교회를 주말마다 방문하였다. 그 중 '보깨오'라는 지역은 두 시간 내외면 도착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머지 3곳의 교회는 지역적으로 다문화, 다국적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전부터 다민족 지역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한 것은 카렌들이 예상하지 못한 민족들과 조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연결점들이 확장되고 있었다.

그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민족은 모두 빠오(Pao), 타이야이(Shan), 빠라롱(Palaung), 타이르(Tai Lue), 몽(Hmong), 동북부 타이인(Isan), 북부 타이인(Khon Muang)이다. 이 가운데 몽족은 오래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다. 타이르도 오래전부터 근처에 터를 잡아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북부 타이인은 국가 행정·치안·교육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북부 타이인들은 이곳의 토마토 씨앗 생산 농장의 기술자로 1년에 두 차례 잠시 머문다.

여기에 새로운 민족이 등장하였다. 타이야이 민족이다. 이들은 미얀마에서 버마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종족으로 타이 민족 가운데 자체 왕국을 가졌던 민족이다. 이어서 빠오 민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라롱 민족이 미얀마에서 왔다. 이들이 온 이유는 간단하다. 딸기 재배를 위한 이주민 노동자로 온 것이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1000미터로 일 년 내내 날씨가 선선해 딸기 재배지로 적합하다. 딸기 농사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지역 카렌족만으로 부족하여 외부 노동자가 필요한 시점에 태국 정부의 미얀마 노동자 유입 정책과 맞물려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불교도라는 점이다. 타이야이, 빠오, 빠라롱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소승불교권 지역이다. 이곳에 온 이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태국 북부인이나 태국 동북부도 소승불교가 그들의 전 인생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보깨오 지역은 이들과 비교하면 불교도가 소수인 기독교 지역이다. 태국 전체로는 천주교를 합하여도 기독교가 1%를 막 넘었지만, 이곳은 천주교를 합하면 기독교 비율이 약 70%가 넘는 범기독교 지역이다. 그 가운데 침례교는 가장 잘 조직되어 있다. 민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 민족들인 타이야이·북부 타이인·동북부 타이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민족, 종교 상황으로 독특한 역동이 형성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이다. 여기에는 각 민족이나 가정의 이주 목적과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민족을 흠으시고 정착시키시는 하

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과 선교 역사는 이러한 과정이 교회의 선교사역과 깊이 관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선교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으로 타이야이 민족이 이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위한 선교사역은 진행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네 번의 지역 방문을 통하여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지역 안에 들어온 타민족을 향하여 그들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 차원도, 전략적인 접근도 아니었다. 다만 개인적인 부담과 긍휼의 마음으로 남들의 필요를 도우면서 이미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것이다.

네꼴로교회의 아누손 장로 부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타이야이인과 빠오인의 필요를 거들어주고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같은 교회의 레위라는 형제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의 종묘장에서 일하는 동북 지방에서 온 태국인들에게 된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추오꺼보교회에서 작년에 전도처로 삼은 '타이 르' 민족 매랩 마을에 있는 카렌 전도인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내가 내릴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미 선교적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때로 그들보다 큰 민족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하는 선교는 자연스럽게 '약자'인 카렌족이 '강자'인 타이 민족이나 불교도에게 하는 것이었다. '약자'로부

터의 선교' 현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고, 이는 내가 관심을 가진 선교 방향이다. 나는 그들에게 현재 하는 일의 선교적 가치를 격려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자고 한 후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같이 동행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역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온 이주민을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다가오는 대답이 있었다. "이때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 카렌 교회에서의 일을 생각하였는데, 타민족을 위한 선교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넘어서는 선교적 자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교회 역사는 선교운동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다. 이는 비단 한 시대만이 사건이 아니다. 21세기 먼 카렌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이러한 선교사역이 더욱 구체화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

GDN
GLOBAL DIASPORA NETWORK

로잔디아스포라

meritz
메리츠화재

이주민전문보험
특화팀
031-420-6306

막대한 의료비
보험으로
준비
하세요!!

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Lausanne Diaspora Global Classroom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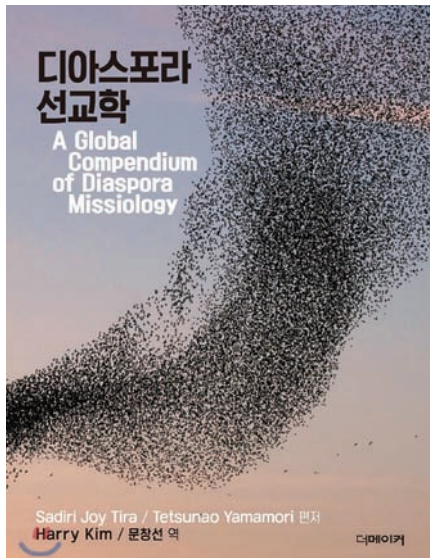
2023년 2월 27일~5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20~9:30)

장 소 : ZOOM 온라인
훈련비 : 15만원 (위디선교회 하나은행 464-910007-22804)
문 의 : 최현주선교사 010.4688.3816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등록링크 : <https://forms.gle/Q91oqKeosC1HrGbY8>
주관 : 위디국제선교회
협력기관 : GDN NEXTMOV CDM 주안대학원대학교
디아스포라신문 한국국제선교협의회 Kima

**이주민선교학교
클래식 24기 모집**

상황과 이해	강	날	주제
상황과 이해	1강	2/27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해
	2강	3/6	한국 이주민 선교의 역사와 현황
	3강	3/13	성경 속의 이주민
	4강	3/20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법, 그 활용방안
준비와 적용	5강	3/27	비교종교와 타문화
	6강	4/3	국내 무슬림 선교
	7강	4/10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
	8강	4/17	이주민 선교사역의 5단계
진행과 성취	9강	4/24	유학생 선교
	10강	5/1	이주민로자 선교
	11강	5/8	이주민 가정 및 2세 선교
	12강	5/15	탈북민선교
	13강	5/22	이주민에게 듣는다
	14강	5/29	연구발표 및 수료식

바다 위에서 이뤄지는 디아스포라 선교



디아스포라 신문은 정기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13장 '공해상에서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요약하여 담았다. 저자인 마틴 오토(Martin Otto)는 198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선원선교를 시작하여 현재는 필리핀 '치치온더오션스' 프로젝트의 감독직을 맡고 있다. 그는 "떠다니는 선박"에 간혀 있는 수천 명의 선원의 문화적·신체적·정서적·경제적·영적인 상황을 들추어낸다. 또한, "떠다니는 감옥"을 "떠다니는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이 "떠다니는 감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무역의 약 90%가 선박으로 운송되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선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고 있다. 선원은 바다를 근거로 사는 독특한 노동자 집단이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계약기간 동안 자의적인 목적 없이 국제수역을 횡단하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특별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선원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우리는 떠 있는

감옥에 살고 있다"고 진술한다. 보통 선원으로 35년을 일하는 동안 집, 가정, 친구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30년이나 될 정도다.

대부분의 선교학자, 전도사, 교회개혁 전략가들의 생각은 '땅'에 고착되어 있다. 그들은 지구 표면에 육지보다 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선원이 있기 마련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의 직선적이고 당연한 의미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바다 위에서 일 년 중 6~9개월을 머무는 세계의 모든 선원도 포함된다. 선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세계항구 그 어느 곳에 서든지 선원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고독한 선원들은 친절함 방문을 환영할 것이며 진심 어린 관계 맺음을 반길 것이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기회가 되며, 성경과 기독교 문화 및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공해상에서 그들의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선원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선상의 선원들을 통해 세계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게 된다.

필리핀 해외채용 관리국(POEA)에 따르면 필리핀은 1987년 이래로 선원의 세계 주요 공급 국가 중 하나이다. 필리핀 선원이 전 세계 150만 명 선원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 업계에서 필리핀은 가장 큰 하나의 국가 블록(bloc)으로 여겨진다. 필리핀 디아스포라들은 많은 나라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계의 바다에 흩어져 있다. 필리핀 해외노동자(OFW)

중 7% 이상이 진정한 신자로 추정된다. 여기에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OFW가 25만 명을 넘으며, 3만 2000명이 항해하는 선박 위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날 필리핀 선원은 수척의 배 위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적의 기독교인들도 선박 위에 교회를 개척하여 인도하기 시작했다. '프린센담(Prinsendam)'이라는 유람선에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어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선원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퀸 빅토리아(Queen Victoria)'호에서는 스리랑카 기독교인이 매주 성경공부를 인도하는데 이 그룹은 다문화적이며 다인종적이다. '디즈니 크루즈 라인즈(Disney Cruise Lines)' 유람선에서는 중남미 국가 출신인 몇몇 기독교인이 선상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제는 선상 교회의 수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다.

선상 교회개척은 점차 실현되고 있다. 바다 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략은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대다수의 글로벌 교회는 선상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다. 따라서 선원 선교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땅 위의 기독교인과 교회에 선상 교회와 그 독특함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각 단체가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운로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면 선원들이 사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허브(hub, go-to site)가 될 것이다. ②땅 위의 교회들과 바다 위의 교회 사이에 상호 기

도와 지원 등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③항구 선교사와 봉사자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연락망을 홈페이지에 올려 선원이 그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④선상 교회 지도자들을 네트워킹하여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⑤선원이 근무로 인해 집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⑥디지털 기술을 통해 바다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경학교 교재(커리큘럼)를 고안한다. 이 교재에는 제자화, 리더십, 묵회, 그리고 선교적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해상 또는 육상에서의 미래의 전임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선원이 겪는 디아스포라 상황은 양면적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원들은 모든 종류의 화물을 우리에게 운송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단순히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바다에 있는 잊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는 선원의 친구가 되어주고, 트라우마 상황에 처한 선원들을 돕고, 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찬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운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2023 KWMF 중앙위원회 입법 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 열려

한인 선교사들 '2023 평촌 선언' 채택... 코로나 이후 선교전략 모색

▼회의 참석자들 단체 기념사진 ©KWMF



전 세계 60여 개국 330여 명의 한인 선교사와 한국 선교 지도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이은용·공동회장 방도호, 어성호, 강형민)는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2023 중앙위원회 입법 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를 개최하고, 23일 '2023 평촌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모임 주제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계 7:12), 부제는 '선교 돌파를 위한 혁신과 변혁'으로, 61개국에서 온 10년 차 이상의 한인 선교사와 교단 선교부 임원, 선교단체 대표 및 선교동역 목회자 등 339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이후 제기된 선교 현장의 이슈를 선정하고, 한국선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 이후 새롭게 펼쳐진 선교환경 속에서 '코로나 이후의 선교전략'을 모색해 선교가 촉진되도록 한 자리에 모였다"라며

"△차세대 동원 △리더십 트랜지션 △자립교회 개척 △이주민 선교 △현지인 훈련과 파송 △선교와 타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도록 현장 이슈들을 토론하며 성찰했다"고 밝혔다.

세계 선교를 위한 '차세대 선교동원'과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추와 통찰을 통해 혁신과 변혁의 본을 보며, 차세대 선교를 더욱 동력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준 높은 윤리와 자질을 갖추고 차세대의 의견을 수용하며, 그들의 성장 단계에서부터 선교 교육을 심화시켜 선교 동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더십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선교지의 지도자로서 건강한 리더십 이양을 실천하며, 구체적 지도와 다각적 지원을 통해 현지인과 후임 선교사들에게 위임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더십 개발을 지속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리더십 트랜지션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립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현

지인들과 수평적 관계를 통해, 선교 현장에 재생산하는 자립 교회를 설립해 나갈 것"이라며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사역과 역량을 위임함으로 성경적 자립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 전파의 대리자로서 각 민족을 선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기에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금융 사역, 문화 사역, 생계와 체류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타종교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다문화 예배와 복음 증거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이들을 자비량 이주민 선교사로 준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현지인 훈련과 파송'과 관련해서는 "선교 자원이 감소되는 현상 속에서 현지인 선교사 훈련과 파송을 병행함으로 세계 선교를 지속해 나가며, 선교 플랜팅을 통해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선교 동력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교사 교회"를 세웠던 과오를 성찰하고, 상호 동등의 바탕 위에 현지인 선교사를 발굴하며 미래 선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선교와 타종교'에 대해서는 "다원화된 종교 사회에서 타종교에 대응하는 선교사 영성을 개발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글로벌화된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영성 모델을 따라 기독교 영성으로 타종교의 도전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본 대회에서 선교사들과 선교 리더십들이 함께 한 결의가 새로운 선교의 추진력이 되어 세계 복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KWMF 사무총장 이근희 선교사는 "이번 중앙위원회 입법 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렸고,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호스트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한국교회와 선교지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사역의 패턴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혁신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열린 모임이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KWMF는 1977년 한인 선교사 일곱 가정의 친교로 시작됐으며, 1982년 제1회 한국선교사대회를 시작으로 2년 또는 4년마다 선교사대회를 개최했다. 1988년 미국 휘튼대학 빌리 그레함센터에서 제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열린 이후에는 4년마다 정기 총회를 포함한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하고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또 199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제1차 한인세계선교사 지도자 개발회의(KMLC)를 필두로, 한인세계선교사 대회 개최 2년 차에 중앙위원회 입법 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를 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한인선교사대회는 2021년 한동대학교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동시에 열렸으며, 2년 차인 올해 KWMF 중앙위원회 입법 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가 열렸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세계를 향해 날으는 학위 취득.....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글로벌선교센터(GMC) 대표
글로벌대학교(Global University) 한국 대표



글

이주영 목사

인생에 질병만 없어도 얼마나 편한 삶이 될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힘든 삶의 여정을 이어간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그때는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더욱더 질병에 무방비 상태였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다. 병을 앓은 지 자그마치 12년 동안 병 고쳐준다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생만 하고 돈만 날렸다. 고치려 또 고쳐보려 애쓰다 이제 포기가 되는 나의 질병, 의사는 죽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 묵은 지병,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나와 내 가족의 몫일 뿐인데..... 그 묵은 병을 안고 고통받던 여인의 몸에 오늘 스파크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 거리는 복잡했고, 부정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유대적 관념으로 손가락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질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그 무엇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달려나갔다. 오늘도 피는 그렇게 줄줄 새고 있었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또 한 번의 실패만 안고 돌아설 수 있다고 해도 그는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여인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질병의 사슬을 풀어주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막 5:34)

만일 여인이 그날 그 선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여인은 포기했을까? 아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갔을 것이고, 시키시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했을 것이다. '내 병은 주님 손으로만 나을 수 있음을 안 이상, 여기서 포기할 순 없는 일 아닌가!' 이러한 여인의 의증을 아셨기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의도적으로 내 능력을 가져갔느냐?"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말자. 여태껏 주님 손길을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여인이 주님 계신 거리로 나가기 위해 대문을 나설 때만 해도 그의 완치를 누가 장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생긴 질병이든 오래 묵은 지병이든, 개의치 않고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네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느니라"는 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말자. 주님의 능력이 증세에 흘러 들어와 모든 통증을 씻어내리도록 그 옷자락을 더더욱 힘껏 당겨보자. 이런 각오로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 받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원한다.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人的一生中要是没有疾病, 该有多舒适安逸啊? 但遗憾的是, 很多人疾病缠身, 过着痛苦的生活. 耶稣时代当然也是如此, 当时的医学水平没有现在发达, 对疾病更加束手无策.

今天, 耶稣治好了患了12年血漏症的女人, 整整12年了... 为了治病, 这个女人不知求问了多少医生, 但结果只是白白费力, 费财.

"我的病怎么也治不好, 真的想放弃了.....医生说我这病要带到坟墓里..... 我和我的家人只能默默承受这疾病带来的痛苦....." 这个因顽疾而痛苦的女人, 今天, 在她的身上发生了神奇的火花.

街上到处是人, 耶稣被众人拥挤, 女人知道自己身上的疾病在犹太人的观念中被认为不洁, 会受到指责, 但想要被医治的信念, 仍支持着她不顾一切地跑向了耶稣.

今天血照旧流个不停.....也许今天见不成耶稣, 疾病也得不到医治.....今天也许会再一次失望..... 但, 她仍旧挤到了耶稣跟前, 神看到了她的信心, 为她解开了疾病的枷锁! "女儿,

你的信救了你, 平平安安地回去吧, 你的灾病痊愈了." (可 5:34)

如果这女人那天没有被耶稣宣告得医治, 她会放弃吗? 不会! 她仍会坚持直到主治治好她. 她会愿意跟着耶稣, 去主去的任何地方, 做耶稣让做的任何事情.

"我的疾病只能靠主的手得医治, 因着他我必痊愈, 我不能放弃!" 耶稣感知到了这个女人的想法, 所以问道: "谁摸我的衣裳?" "谁拿走了我的能力?"

直到我们身上的疾病消失之前, 都不要放弃. 就算至今还没有经历主的做工, 现在失望还为时过早呢. 我们谁能想到, 一个女人在这一天, 出门走上街, 她的疾病竟然被医治了呢?

不管是新病或是旧疾, 让我们期待主的医治吧, 在主保证说"你的病完全被医治了"之前, 不要动摇. 紧紧抓住主的衣角, 直到主的能力流入我们身体, 医治我们的症状, 洗去所有的病痛. 希望大家以这样的决心从疾病中解放出来, 经历人生的奇迹.

번역가자 묘초초

www.diasporanews.kr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반항적 이주자로 살아갔던 에서의 삶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대국제선교회 국제이사



글 Dr. Tereso Casiño

어쩔 수 없이 이주의 걸음을 걸어야만 했던 쌍둥이 동생 야곱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이주 형태는 매우 독특하다. 에서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주의 모습은 반항적인 동시에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의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의도적 이주였다. 반면에 에서는 개인적인 성품과 가정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이었고,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후에도 그는 부모님과 더 오랜 시간 가까이 지냈다. 에서는 자기 가족과 식솔들을 부모의 고향인 '세일 땅 에돔들'로 이주시켰다(창 32:3).

오늘날 이동 중인 사람들에게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야곱은 복된 가족의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으로 그의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다. 아버지 이삭은 이미 시력을 잃고 두 형제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그 사이 어머니 리브가의 공조로 야곱은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 앞에서 에서와 같이 행동하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털이 많은 양가죽을 몸에 뒤집어쓴 채 에서를 흉내 내는 야곱에게 이삭은 꿈쩍없이 속고 말았다.

여기 사기꾼 아들 야곱과 아버지 이삭의 대화를 보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창 27:18~20)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인용했던 것이다. 결국 야곱은 가짜 맏아들로서 축복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삭이 야곱의 속임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장자권의 축복이 선언되어 모든 권리와 특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울며 그의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도 축복을 빌어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소용없었다(창 27:38~40).

두 번째, 음모에서 시작된 에서의 장자권 상실이다. 에서는 엄마와 남동생의 공조를 생각치도 못했지만, 속임수의 배후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

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창 27:6~10) 리브가의 계획은 야곱에게 유리한 만큼 에서는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녀가 가족 역학에 대한 결과를 무시한 것은 노골적이고 의도적이었다. 어머니는 자기희생적인 방법으로까지 장남보다 막내를 편애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창 27:13)

세 번째, 에서가 헛 족속 여인 두 명과 결혼한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다. 성경은 "에서가 사십 세에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창 26:34~35).

또 다른 구절은 이러하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창 28:8~9)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에서는 부모의 감정이나 종교적 신념에 개의치 않고 그의 민족 공동체 밖에서 세 번째 아내를 얻었다. 이것은 에서가 이룬 가정의 특징으로 보인다. 다섯 아들을 둔 에서의 집안은 강력한 사회적 연결고리와 연줄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요 씨족으로 발전했다.

넷째, 에서가 오히려 자신을 속인 동생 야곱을 용서한 것이다. 이는 속임수로 깨진 가족이 다시 합해지는 반전이다. 야곱은 에서가 군대와 함께 그와 그의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였다. 그의 기도는 처절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창 32:11) 야곱은 심지어 자신을 형 에서에게 "중"이라고 표현했고, 에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불렀다(창 32:18). 야곱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에게 다가가서 일곱 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완전히 뜻밖이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야곱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울었다(창 33:4). 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지만, 동생에게 지속적인 원한을 품지는 않았다. 에서는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했다. 야곱을 향한 그의 사랑과 용서는 마침내 이삭의 집에 화평을 가져왔다. 그들이 이주해 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바로 그 장소에 아버지 이삭을 장례하기 위해 다시 만났을 때 그 용서는 더욱 완벽해졌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lightlaw.com
www.dl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4)

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 박사
HOPE 선교사



윤사랑 박사

글

국내 타문화권 선교인 이주민 선교는 특수한 영역으로,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목양할 수 있는 이주민전문사역자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민 5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이주민 리더십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에 허브 역할을 감당할 외국인 사역자들의 사역적 위치가 점점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주민 사역의 전략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주민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질적 사역의 주체인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조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국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이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이중문화(bicultural)적 삶의 의미와 적응 과정으로서의 전체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는 한국교회의 시스템과 제도적인 관습 속에서 자신의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며, 이중문화적인 존재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삶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로 첫째, 한국교회와 이주민 사역 공동체라는 이중문화 속에 살아가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의 의미와 그 적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한국교회가 잊기 쉬운 사역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중의 하나로 여기는 모든 신앙인의 책무"이다(김도일, 2020, 55).

둘째, 외국인 사역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홍은 한국교회가 말하는 이주민 선교의 장애요인으로 첫째, 선교전략의 부재, 즉 사역 방법을 모른다는 것과 일꾼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순홍, 2009, 157). 반면 외국인 사역자들이 지적하는 이주민 선교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첫째,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균점사상(均霽思想)으로 이주민 사역이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한다"는 일종의 과시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여전히 한국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언어와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거리는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주민의 문화적 공복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임희모, 2015, 275),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이주민의 삶을 총체적 실존 전체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주민을 주체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교회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자부심에 깊이 뿌리 내린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이주민 사역과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투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버트

(Hiebert)는 우리는 우리 자녀와 새로운 회심자에게 기독교 의식이 지닌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어 그 의식들이 빈껍데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Hiebert, 2018, 262).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전통과 신념 그리고 관습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교회와 한국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단면을 분석, 점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회교육은 교회가 있는 곳에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강용원, 2003, 7-8).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존재는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괄목할 만한 열매를 맺었으며, 외국인 사역자들 또한 사역자로서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교육의 큰 제도 안에서 탄탄한 기반을 이루었다. 반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성장제일주의, 성과주의에 중점을 두면서, 규모가 큰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를 성공한 교회로 보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중 절기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 중심 목회를 지속해 왔다(강용원, 2003, 16-17).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서열 문화는 신앙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상의 삶 자체이자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정원범(2008)은 교회 직분이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정신에서가 아닌 힘의 서열로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원범, 2008, 93-94). 한국교회에서 나이에 따른 서열과 직분은 권력

으로 작용하여 더 강한 계급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통해, 진정성 있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찾는 데 기여하고 있다. Letty Russell(1952)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한다(Russell, 1952, 9).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교육은 사람들이 양육되는 방법이었고, 항상 교회의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초대로, 변화하는 21세기,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한국인과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 출신의 사역자들이 삶을 형성하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비기독교인인 이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이주민 공동체를 성장시켰고, 그 속에서 그들 스스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주민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을 형성하시고, 또 사람들을 참된 성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Russell, 1952, 18).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하나님의 선물인 기독교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 속에 펼쳐진 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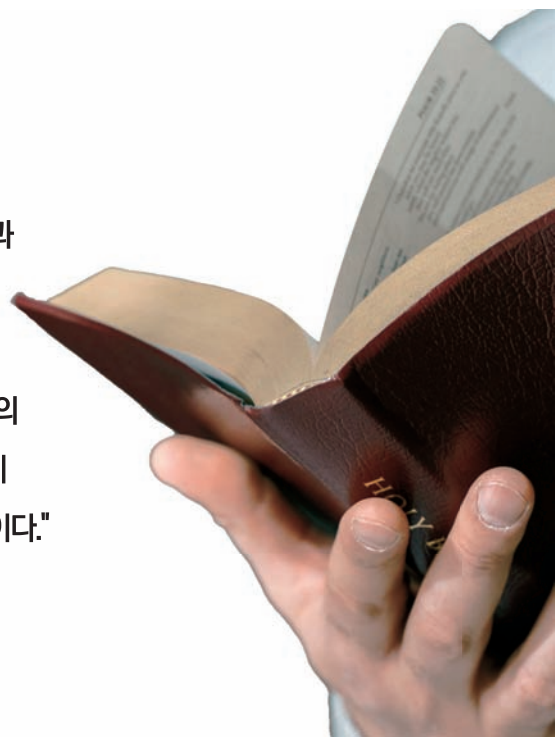


체성과 신앙 형성,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지를 통해 기독교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의 간학문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근대의 사회와 학문이 세속화되면서 과도한 분화와 분리가 심화되었던 점을 반성하고, 신학의 분과들이 유기체적이라는 맥락에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가 방향의 관점이라면 기독교교육학은 방법과 기능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Russell, 1952, 18). 그러므로 선교

와 기독교교육은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독교교육은 선교교육이며, 기독교교육에 참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특성상 한국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범위의 제한점이 있다. 외국인 리더십의 관점에 집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교회 내 이주민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즉, 외국인 사역자에 편향되어 있는 연구의 특성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 이외에 다양한 이주민 사역자의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이주민 사역의 전략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주민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질적 사역의 주체인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조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8면 설교단상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Agar hayotda kasalliklar bo'lmasa, hayot qanchalik zo'r bo'lar edi? Lekin, afsuski, ko'p odamlar kasallikdan aziyat chekib, qiyin hayot kechiradilar. Isoning davrida ham xuddi shunday bo'lgan. O'sha paytlarda tibbiyot hozirgiday rivojlanmagan, odamlar kasalliklarga qarshi himoyasiz edi.

Bugun Iso 12 yildan beri qon ketishidan azob chekayotgan ayolni davolaydi. 12 yil o'tdi... Kasalliklarni davolaydigan ko'plab shifokorlarni uchratdi, davolanish uchun ko'p qiynaldi, puli tugadi.

Qayta-qayta tuzalishga harakat qildi, ammo endi tuzalishdan voz kechdi... Shifokor o'lim kunigacha shunday davom etishdan boshqa iloji yo'qligini

aytgan eski, surunkali kasallik... O'sha kasallikdan kelib chiqqan dard faqat uning va oilasining zimmasida... O'sha eski xastalik bilan og'rigan ayol tanasida bugun uchqun paydo bo'ldi.

Ko'chalar odamlarning ko'pligi sababli gavjum edi, garchi yahudiylar uni nopok kasallikdan aziyat chekyapti, deb ko'rsatishi mumkin bo'lsa-da, ayol kasallikdan davolanish uchun hech narsadan tashvishlanmay, Iso turgan joyga yugurdi.

Bugun ham xuddi shunday qon oqardi... Balki Iso bilan uchrashish muvaffaqiyatsiz tugar... Keyin yana umidsizlik bilan ortga qaytsa ham... U oldinga yurdi, Xudo ayolning imonini ko'rdi va uni kasallik zanjirlaridan ozod qildi! "Qizim,

ishonching seni sog'aytirdi. Eson-omon bor, dardingdan xalos bo'lgin."(Mark 5:34)

Agar o'sha kuni ayol hodisaning bosh qahramoni bo'lmaganida, u taslim bo'larmidi? Yo'q! Rabbiy uni tuzatmaguncha to'xtamagan bo'lardi. Rabbiy qaerga borsa, u o'sha yerga borardi va so'ragan hamma narsani qilgan bo'lardi.

"Men bu Kishidan voz kecha olmayman, chunki mening kasalligim faqat Rabbiyning qo'li bilan tuzalishi mumkinligini bilaman!" Bu ayolning niyatini bilib, Rabbiy bu savolni berdi: "Kiyimlarimga kim tegdi?" "Kim mening kuchimni oldi?"

Kasallik belgilari yo'qolmaguncha to'xtamang. Rabbiyning qo'lini tatib

ko'rmagan bo'lsangiz ham, umidsizlikka tushishga hali erta. Hatto ayol Rabbiy turgan ko'chaga chiqish uchun darvozadan chiqqanida ham, uning to'liq davolanishiga kim kafolat bera olardi?

Keling, bugungi kasallik yoki uzoq davom etayotgan kasallikdan qat'i nazar, shifo beradigan Rabbiyga qaraylik. "Kasalligingizdan butunlay tuzaladingiz" degan ma'lumotni olmaguncha, ozgina bo'lsa ham tebranmaylik. Rabbiyning qudrati sizning kasallik belgilaringizga oqib, barcha og'riqlarni yuvishi uchun Iso kiyimining etagini yanada qattiqroq tortaylik. Ushbu qat'iyat bilan sizga kasallikdan butunlay xalos bo'lgan mo'jizaviy hayot tilayman.

번역기자 정요셉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과 이슈 (1)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는 일에는 많은 도전이 따른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종·분파·교단을 초월하여 '성경에 바탕을 둔 복음적 연대(Biblical Evangelical Ecumenism)'를 통한 변혁만이 마지막 선교 세기의 진정한 대안임을 암시하는 징후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벤자민 베크너(W. Benjamin Beckner)는 <후기 기독교의 유럽 선교(Mission to Post-Christendom Europe: Affirming Pan-European Evangelical Identity, Unity, and Action)>라는 논문에서 유럽의 제도권 교회의 쇠퇴를 지적하는 한편,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음주의의 물결에 대해 통계를 들어 자세히 소개했다. 예컨대 오순절과 카리스마틱을 포함하여 복음주의자들의 숫자가 1970년과 2050년 사이에 유럽에서만 129만 명에서 226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유럽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신생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전통적인 주류교회, 즉 침례교·감리교·가톨릭·성공회·오순절 교회·루터교 그리고 다양한 정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또 다른 부

류는 독립교회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와서 유럽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종, 문화, 언어에 따라 구분되거나 다국적·다민족 교회들도 생겨나면서 유럽은 비제도권 교회들이 교회의 지평(ecclesial landscape)과 초교파적 연합의 과정(ecumenical processes)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를 들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과 이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럽의 재선교 이슈이다. 본 이슈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를 기념하는 2010 대회에서 '미래의 선교 참여 형태(Forms of Missionary Engagement)'에 대한 소그룹 발제 내용으로 거론되었다. 유럽이 선교지인가 하는 논쟁은 한국의 교단 선교부에서도 오랫동안 거론되어온 낯설지 않은 이슈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국에서 이주자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된 유럽 선교는 '서구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새로운 종교적 활동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기울어 가는 서구 기독교에 대한 '재선교'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님은 급진적인 흩어짐(radical dislocation)을 통해 항상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셨다. 유럽에 유입된 비서구 교회들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지역교회와의 연대를 모색하여 유럽이 복음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구, 비서구 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락: 디아스포라>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 선교 사역자, 유럽의 지역 교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사역구조를 가지고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

①자민족 선교(Internal mission): 비서구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일차적으로 자민족 중심의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다. 지난 50년 동안 유럽 한인 교회 대부분이 주재원, 유학생, 영주자와 같은 자민족 중심의 종족 목회에 집중하면서 타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②역선교(Reverse Mission): 최근 비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인을 겨냥한 복음전도를 활발하게 시작하였는데, 그중 특별히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은 유럽의 대도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과거에 받은 복음의 빛을 갠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역선교는 배리쉬 오블라우(Wahrisch Oblau)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000). 이러한 선교는 교회나 회중 중심 혹은 개별적으로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역의 형태로 볼 수 있다.

③협력 선교(Common Mission): 세속화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교회와 이민자 교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유럽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화 문제는 유럽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광범위한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비서구인의 관점에서는 불신자를 선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과 동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함께하든 독립적으로 하든 '그리스도를 위해 일'이라는 일이 되어야 하며, 비서구의 독특한 방식—비전과 꿈, 예언, 치유 등—이 온 서구세계의 복음화에 새로운 첨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단순히 유럽 교회의 부록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정체성과 리더십, 주도권, 열정, 비기독교적인 사상, 종교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다인종 국가로 급속하게 인구 지형이 바뀌는 현실에서 제도권 교회와 이민자 교회의 진솔한 협력은 앞으로 유럽 선교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3면에 이어서)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샬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샬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G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둘째, 교회가 직면한 이슈가 있다. 유럽의 교회 대부분이(가톨릭 포함) 최근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민 물결로 인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은 현지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놓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선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는 이 도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민감성과 긍휼에 대한 도전이다. 교회는 노숙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더불어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편견이 아닌 믿음의 신조에 따라 태도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도전은 이민자를 대하는 사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선지자적

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회가 이민자로 인해 공황상태를 겪는 상황에서, 약자와 주변인에 대한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이다. 특히 기독교의 가치가 타락하고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호전적인 이교주의(paganism)가 팽배한 유럽사회에서 부정의(injustice)에 항거하는 일은 아주 낮은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회가 예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나 다름없다.

세 번째 도전은 이민(디아스포라)이 선교의 복음적 영역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개종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교회나 이민 교회가 목회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전환되어 그들 가운데 들어온 '타자'를 환영해야 한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포토 갤러리



▲ 할루나씨는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3면)



▲ 공촌교회 공촌외국인사랑방 사역은 어느덧 26년째 이어져 왔다. (3면)



▲ 미얀마 이주민들이 일하는 딸기 농장에 방문하여 빠오(Pao) 부족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5면)



▲ 보깨오 지역에 사는 아누손 부부는 미얀마에서 온 소수민족 이주민에게 디아스포라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5면)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롱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왕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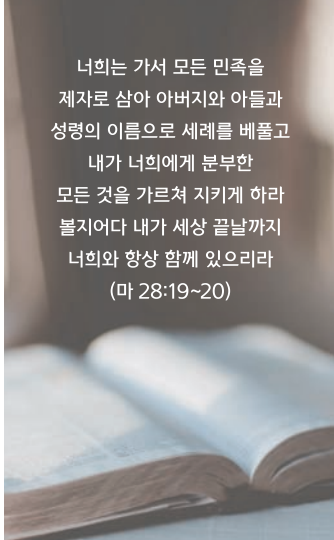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선교한국은 기독교청년들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학생선교단체, 파송선교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선교운동입니다.

2023선교한국대회 주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20:21)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이 복음의 사건이라면
성자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선교의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레야 떨 수 없는 관계입니다.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한국대회를 통해서
청년들은 복음의 생명력과 선교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강사



문대원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아침성경강해



윤태호 목사

JDM 대표
*저녁집회(월)



화종부 목사

남서울교회 담임목사
*저녁집회(화)



박현주 선교사

WEC선교회 부대표
*저녁집회(수)



김요한 목사

전 GMP 대표
현 둘로스네트워크 대표
*저녁집회(목)



한철호 선교사

미션파트너스 대표
*파송예배(금)



김장생 선교사

CCC 해외선교팀장/커넥션스쿨

이혜란 선교사

CCC 순상담센터장/커넥션스쿨
*Global Mission Trends(월)

등록안내

1차 등록 3월 13일 ~ 5월 30일 학생 11만원, 일반 13만원
2차 등록 6월 1일 ~ 7월 4일 학생 12만원, 일반 14만원
3차 등록 7월 5일 ~ 8월 1일 학생 13만원, 일반 15만원

- 등록은 선교한국 홈페이지(www.missionkorea.org)에서 가능
- 기본 숙소는 한동대 기숙사 4인실(60,000원 별도)이며,
원치 않을 시 개별적 숙소 예약 요망



주요 프로그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녁집회**
선교로 말씀을 파헤치는 **아침 성경강해**
세계선교 흐름을 꿰뚫는 **GMT(Global Mission Trends)**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으로 가는 **파송예배**
타문화 선교사들의 **아름다운평결소식**
선교적 관점을 열어주는 **미셔널 세바시**
다양한 퍼포먼스의 **버스킹**
궁금한 건 못 참지 **미셔널 Q&A**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강의**
다양한 선교단체들과 함께하는 **선교단체 박람회**
선교 현장을 체험해 보는 **다이나믹 배움터**
국내 최고의 선교도서를 한 눈에! **선교도서 박람회**
다양한 동역자들과 만나는 **소그룹**
나의 선교 여정을 도와줄 **미셔널 멘토링**
다양한 국가에서 선교운동을 섬기는 **해외참가자**
단체 참석자를 위한 **단체 개별 시간**까지!

예배팀



선교한국 회원단체

아이자아씨스티원

ISAIAH **of** one

